



## SK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두산

# “벌떼전술” 맞짱

◀ 김성근 “이길 준비 끝났다” “삼세번 질수 없다” 김경문 ▶

14년 만에 펼쳐진 '경부선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3년 연속 치러지는 '경인 전철' 시리즈가 온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패하고도 사상 처음 살아남은 두산 베어스와 정규시즌 막판 파죽의 19연승을 질주한 SK 와이번스의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가 7일 오후 6시 문학구장 1차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연승 대 연승 = 두 팀 연승의 기세가 팽팽하다.

두산은 롯데와 준플레이오프 2차전부터 세 경기를 비교적 '넉넉하게' 이겨 자신감과 여유를 가졌다. 준플레이오프 4경기 팀 타율 0.310으로 방망이에 물이 올랐고 격정했던 마운드도 평균자책점 3.50이다 2-4차전 선발이 3경기 연속 5이닝 이상 호투해 짐을 덜었다.

시즌 막판 SK의 연승 기운은 더 강했다. 일본프로야구 연승 기록(18)까지 깨트린 SK는 '도저히 질 것 같지 않은' 기세를 자랑했다. 특히 8월2일부터 두산과 6경기에서 전승을 거뒀다. 그 전까지 3승9패1무로 뒤져 있던 상대전적을 9승9패1무로 균형을 맞췄다.

◇벌떼와 벌떼 = SK는 타선과 볼펜이 모두 '벌떼 야구'로 불린다.

고정된 타순이 거의 없는 SK는 주전급 타자 중 정근우(9개)를 제외한 전원이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렸다.

박정권(25개), 나주환(15개), 박재상(12개)의 홈런 상승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볼펜은 좌완 이승호, 고효준, 정우람과 우완 윤길현, 잠수함 정대현이 잘라서 막는다. 아무리 길더라도 한 타순이 돌 때까지는 마운드에 남아있지 않는다. 상대 타자들은 공을 눈에 익힐 틈이 없다.

두산 볼펜도 SK 못지않게 '인해전술'을 쓸 수 있다. 'KILL 라인' 고창성-임태훈-이재우-이용찬은 준플레이오프에서 선발 투수들이 의외로 길게 던져져 힘을 비축할 수 있었다. 다만 고창성, 이재우의 구위가 좋지

않다는 점이 걸린다.

◇구멍 난 공통 분모 = 전력 누수를 따져 보면 아무래도 SK가 훨씬 심각하다.

에이스 김광현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우완 에이스 노릇을 해온 송은범과 왼팔 마당쇠 전병두의 이탈은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큰 흔들림은 감지되지 않는다.

두산은 왼손 선발요원 크리스 니코스키와 외야수 임재철의 공백이 크다. 따라서 구멍 난 빈자리를 메우려고 투입되는 선수들의 활약상이 중요하다.

◇뚝심과 계산 = 김경문 감독은 준플레이



오프 4차전 승리 이후 '삼세번'이란 말을 입에 올리며 선수들의 오기를 자극했다.

포스트시즌 전적 19승18패로 승률 5할을 넘어서는 김경문 감독은 한국시리즈에서 3승12패로 철저히 당했다. 그중 김성근 SK 감독에게 당한 패배가 8번이다. 김경문 감독에게 '전력'보다는 '오기, 뚝심'이라는 단어가 앞서는 이유다.

반면 김성근 감독은 포스트시즌에서 58차례나 전투를 경험했다. 27승30패1무로 승률은 김경문 감독에 뒤지지만 계산은 이미 열흘 전부터 세우고 있었다.

## 한국시리즈 극장 생중계 한다

CGV 광주터미널점 15일부터

한국시리즈의 감동을 극장에서도 느껴볼 수 있다.

CGV 광주(터미널)점이 오는 15일부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생중계에 나선다. 생중계 일정은 경기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이며 CGV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관람 상영관은 2관으로 208석 규모다. 관람요금은 1만5천원이며 유료수 한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시리즈에 앞서 8일에는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의 플레이오프 경기 가 상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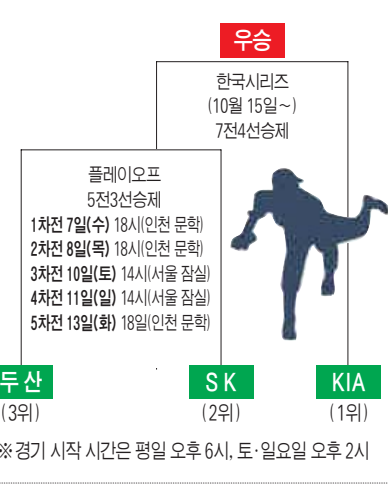
수 있다. 관람 상영관은 2관으로 208석 규모다.

관람요금은 1만5천원이며 유료수 한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시리즈에 앞서 8일에는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의 플레이오프 경기 가 상영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2009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



## 광주시 약속 '신축 야구장' 어떻게?



좁은 관람석 탓에 자리 이동조차 쉽지 않지만 올 시즌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역대 최다인 58만2천여명의 관중이 다녀갔다. 한국시리즈가 다가오면서 광주시의 신축 구장 건립계획 발표에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돈 먹는 돔구장보다 일반구장이 현실적”

야구계 의견 모아져

'가을야구' 약속을 지킨 KIA가 광주시의 '가을야구'를 기다리고 있다.

12년만의 정규시즌 우승을 이루어낸 KIA 타이거즈가 'V10'을 향한 도전으로 분주하다. 대망의 한국시리즈까지 남은 기간은 9일. 신축구장 건립 계획이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지 야구팬들의 눈길이 광주로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11년 만에 광주에서 올스타전이 개최됐다. 올스타전은 성황리에 막이 내렸지만 무등경기장 야구장이 가리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비좁은 덕아웃과 락커 때문에 관중을 찾은 '벌떼의 벌'들은 경기장을 배회했다. 관중을 찾은 8개 구단의 팬들의 불편도 컸다. 경기장이 1만3천400석 규모에 불과한데다 공간 부족으로 행사장이 주차장에 웅크려 마려웠다. 덩달아 주차대란이 벌어졌다.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에 좁은 통로와 관람석, 축제의 현장을 찾은 팬들은 온갖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또 하나의 축제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KIA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역시 낡고 비좁은 경기장이다. 올스타전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은 "10월에 새 구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했다. 약속된 10월이 왔지만 광주시는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돔구장과 개방형 천연잔디 구장을 놓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야구계 전반에서는 돔구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다. 돔구장 건립을 위해서는 5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인구 145만에 불과한 광주시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민자유치를 하기에 광주시의 재반적인 여건은 미약하다.

1천억원 미만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개방형 구장은 정부·지자체·구단 출자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신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건립후 운영도 문제다. 일본의 도쿄돔은 500여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하다. 일반 구장보다 4~5배가량 더 많은 인력에 냉난방비 등 한 해 300~500억원의 유지 관리비용이 든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구단과 팬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구단의 운영비가 가중되고 입장료의 전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신축 계획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무등경기장 부지를 민주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의 용역도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무등경기장 부지 활용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다. 광주에는 마땅한 보조 구장이 없어 무등경기장에서 프로야구 1·2군과 아마야구는 물론 생활체육팀들의 경기까지 열린다. 지난해만 317경기가 진행됐다.

올 시즌 무등경기장에는 역대최고인 58만2천5명의 관중이 다녀갔다. 광주시 인구의 40%가량이 경기장을 찾은 셈이다. KIA의 신바람 야구에 뜨거운 2009년을 보낸 광주 시민들은 현실적이면서도 진심어린 광주시의 '가을 야구'를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위성미가 5일 열린 나비스타 LPGA클래식 마지막 라운드 13번 홀 그린 위에서 수많은 갤러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퍼팅 라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 여제 오초아 3승... 신지애와 다승 공동선두

나비스타 LPGA 클래식18언더파 우승

위성미 4R서 맹추격...아쉬운 공동 2위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혼 준비에 바쁜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나비스타 LPGA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시즌 막판 기세를 올렸다.

지난 해 챔피언 오초아는 5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프래트빌 RTJ골프클럽(파72·6천54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2타를 줄이며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적어내 2위 그룹을 4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지리아)는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치는 맹타를 휘둘렀지만 전날 부진에 발목이 잡혀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브리타니 랭(미국)과 함께 공동 2위에 머물렀다.

오는 12월 항공사 아에로 멕시코의 최고경영자(CEO) 안드레스 코네사(40)와 결혼하는 오초아는 지난 4월 멕시코에서 열린 코로나 챔피언십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컵을 수확한 뒤 5개월여만에 정상에 오르며 시즌 중반 부진을 털어냈다. 오초아는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30점을 보낸 131점으로 1위(136점)를 달리고 있는 신지애(21·미레셋)를 5점차로 바짝 추격했다.

또한 다승 부문에서도 3승으로 신지애와 함께 공동 선두로 복귀했고 상금 19만5천달러를 보태 상금 순위도 5위(120만9천달러)로 끌어올리며 남은 4개 정규 투어에서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했다. 상금 랭킹 1위 신지애(16만5천달러)와 격차는 30만6천달러.

한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신지애는 이달 30일 한국에서 개막하는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에서 오초아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벌인다.위성미는 2번홀(파3)에서 1타를 잃은 뒤 버디 7개를 뽑아내며 기세를 올렸지만 오초아를 견제하지 못하고 생애 첫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전날 공동 5위였던 오지영(21·마벨러스)은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8위(11언더파 277타)로 밀렸고 최나연(22·SK텔레콤)도 3타를 줄였지만 최혜정(25) 등과 함께 공동 11위(10언더파 278타)에 올랐다.

## 최경주 42위 부진

PGA 터너스톤 챔피언십

최경주(39·나이지리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터너스톤 리즈트 챔피언십에서 공동 42위에 머물렀다.

최경주는 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로나의 어트노트골프장(파72·7천482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로 대회를 마친 최경주는 순위를 끌어 올리지 못해 매트 존스(호주), 빌 하스(미국) 등과 함께 공동 42위에 그쳤다.

매트 쿠차와 본 테일러(이상 미국)가 벌인 연장 승부는 일몰로 우승자를 가리지 못했다. 17언더파 271타로 공동 선두를 이휘연 장에 들어간 둘은 나란히 파5 홀인 18번과 12번 홀에서 똑같이 버디와 파로 맞서 5일 밤 9시30분 13번 홀(파4)에서 세 번째 연장전을 벌인다.



## 하인스 워드 113야드 돌진

하인스 워드가 5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즈필드 홈구장에서 열린 미국 프로풋볼 샌디에이고 차저스와의 경기 1쿼터에서 쿼터백 로스리스버거의 볼을 받은 후 샌디에이고의 스테판 쿠퍼의 저지를 뚫고 돌진하고 있다. 이날 워드는 8번 패스를 받아 113야드를 전진했다. /연합뉴스